2012 1분기 독일 한류 동향 보고

독일(베를린) 김세환 통신원

◈ 총평

2012년 1분기 독일 내 한류는 비스트의 베를린 공연으로 대표되는 음악 부문이 가장 두드러졌다. 독일 내에서 아시아 출신 가수가 성공적으로 공연을 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이번 공연은 독일과 한국 양국에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공연을 계기로 독일 내 K-Pop에 대한 문화적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본다. 또한, 국제교류재단과 독일 주요 박물관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한국 유물전도 이번 1/4분기 양국 문화교류에 핵심으로 평가된다.

반면 방송/영상 콘텐츠와 캐릭터 분야의 부진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된다. 베를린 영화제를 통해 한국 영화가 지속적으로 소개되었지만 아직까지 일본, 중국, 인도에 비해서 언론의 노출과 독일 대중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송과 캐릭터 분야의 독일 진출은 전무하였다. 특히 뽀로로를 비롯한 한국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산업의 경쟁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독일 진출이 부진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외에도 해당 분기에 베를린 패션위크, 라이프치히 도서박람회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규모 문화행사들이 있었음에도 한국 문화산업의 진출이 없었다는 점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해당 사항 없음

2. 영화 산업

세계 3대 영화제의 하나로 평가 받는 '베를린 영화제'가 2월 9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올해 영화제에 한국 작품은 6개 분야에서 총 7편이 출품되었다. 먼저 파노라마 분야에 강재규 감독의 <마이웨이>와 전규환 감독의 <바라나시>가 출품하였다. 특히 <마이웨이>는 독일 나치와 관련된 아시아 영화로 소개되며 파노라마 스페셜 분야에 초청되어 현지의 관심을 끌었다. 단편경쟁 분야에서는 김석영 감독의 <마취>와 이우정 감독의 <애드벌룬>이, 포럼 분야에는 김중현 감독의 <가시>가 출품되었다.

또한 음식과 관련된 영화들을 소개하는 <Culinary Cinema>에 이현승 감독의 <푸른 소금>이 청소년영화와 관련된 제네레이션 14 플러스 분야에, 이한 감독의 <완득이>가 출품하였다. 아쉽게도 국내 작품과 배우들의 수상이 없는 가운데, 재일교포 양영희 감독의 <나의 조국>이 포럼 분야 C.I.C.A.E.상을 수상하며 이목을 끌기도 하였다.

2012년도 1분기 한국 상업영화의 독일 개봉이 미비한 가운데, 작품성과 예술성을 앞세운 작품인 김소영 감독의 <나무없는 산>이 3월 1일에 개봉하였으며, 이에 앞서 김기덕 감독의 최신작 <아리랑(Arirang)>도 개봉하였다. 그러나 두 작품 모두 독일 박스오피스에 집계되지 않는 상황이다.

1/4분기에 두드러지는 한국 영화의 특징은 텔레비전을 통한 2차 유통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독일 방송 내 한국 영화 방영 내역을 살펴보면 1월 2일 Tele 5에서 <내츄럴시티>, 1월 6일 Tele 5에서 <천년호>, 3월 9일 RBB에서 <올드보이>, 3월 10일 Tele 5에서 <실미도>, 3월 15일 WDR에서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3월 23일 Pro 7에서 <태풍>이 방영되었다.

아직까지 홍콩, 일본, 인도 영화에 비하면 텔레비전 방영횟수가 적은 편이지만 영화 전문 채널인 Tele 5 이외에 주로 독일과 미국영화를 방송하던 주요 공영방송사 RBB와 WDR, 그리고 전국적 상업방송인 Pro 7에서 한국 영화가 방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음악 산업

1분기 음악 분야의 최대 화제는 2월 12일 베를린 콜럼비아할레(Columbiahalle)에서 진행된 비스트(Beast)의 독일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독일 언론의 큰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베를리너짜이퉁(Berliner Zeitung)은 비스트 공연을 새로운 아시아 문화의 독일 진출로 바라보면서, 2011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유럽 내 K-Pop

열풍에 대해 보도하였다.

비스트뿐만 아니라 런던과 파리 등 주요 유럽 대도시에서 한국 가수들의 공연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독일 음악 차트에서 K-Pop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독일의 대표적 음악방송인 비바(VIVA)의 주요 음악차트인 Top 100과 Album Top 50뿐 만 아니라, 2011년 이후 한국 가수들이 간헐적으로 등장하던 뮤직비디오 시청 관련 부문인 Clip Charts에서도 1분기 K-Pop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현지 주요 음악사이트인 독일 Last FM내 앨범 발매 이후 누적 앨범 재생이 빅뱅이 1,517,940회, 슈퍼주니어가 1,097,650회 비스트가 1,180,180회, 샤이니가 2,129,308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노래에 대한 누적 스트리밍 청취자수 역시 빅뱅의 '하루하루' 18,219명,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가 26,621명, 소녀시대의 'Gee'가 53,496명, 샤이니의 '링딩동'이 22,358명, 비스트의 '쇼크'가 17,7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유투브를 통한 'German Korean Entainment Awards 2012' 등과 같이 독일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K-Pop 이벤트들도 개최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1분기 한국 음악은 독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지만, 독일팬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저변 확대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공연/전시 산업

2월 17일부터 라이프치히(Leipzig)의 그라시(Grassi) 민속박물관에서 한국 유물 관련 박물관 10 곳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특별전시회 'Entdeckung Korea(한국의 발견)'이 진행되고 있다.

2011년 쾰른(Köln)의 동아시아미술관에서도 이미 개최된 바 있는 이번 전시회는 향후 프랑크푸르트(Frankfurt)와 슈트트가르트(Stuttgart)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순회전에서는 각 박물관이 자체 주제에 따라서 총 115회 전시에서 선별된 유물을 전시하며, 한국 역사의 시대순에 따라 조선, 고려, 통일신라, 삼국 시대관으로 나뉘어 독일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시기의 유물을 소개하고 있다.

5. 캐릭터 애니 산업

해당사항 없음

6. 한스타일

3월 21일에 독일 방송 Kabel 1에서 한국 음식 관련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매일 저녁에 방송되는 Abenteurer Leben-Täglich Wissen에서 Auf skurriler Tour in Korea라는 주제로 한국의 기이한 음식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독일 방송에서 접하기 어려운 한국 음식의 소개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닭발과 산낙지 등 자극적인 소재를 많이 다룸으로써 한국 음식의 우수성이 제대로 프로그램에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한편 3월 22일 본(Bonn) 대학교에서 한국어기관인 세종학당 개원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개원식은 본 대학 한국어 번역학과 개설 40주년 기념식을 겸해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어학과장인 알브레히트 후버 교수와 주독한국대사관 본분관장인 김희택 총영사가 참석하여 세종어학당 현판전달식을 거행하였다. 식후 행사로 한국아동문학 작품 상영회 및 낭송회가 개최되어 김남중 작가의 <크로마뇽인은 동굴에 산다>, 김동성 작가의 <들꽃아이>, 김서정 작가의 <나의 사직동>이 소개되었다. 이번 세종학당의 개원은 독일의 괴테어학원, 중국의 공자학당과 같이 모국어 세계화를 위한 초석으로 평가되고 있다.

7. 반한류 사례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현대자동차가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로 2012 홍보대사 '팀 현대(Team Hyundai)'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UEFA 유로 2012 공식 후원사인 현대차는 독일 FC쾰른의 포돌스키를 비롯한 5명의 유럽 축구 선수들로 구성된 '팀 현대'를 통해 전세계 축구팬들에게 현대차 브랜드를 알리는 스포츠마케팅을 진행한다. 이미 월드컵 후원을 통해 브랜드 강화에 성공한 바 있는 현대자동차의 행보가 독일 현지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